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書 지리 ③

도시 공간

취재 김한나·송지연 기자 ybbnni@naeil.com

ONE PICK!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



★★★★

지은이 김진애

펴낸곳 다산초당

※★의 개수는 난도를 의미. 적을수록 읽기 쉬운 책.

"이 책은 도시를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닌 사람의 욕망과 기억, 권력과 자본이 얽힌 '이야기'로 읽어냅니다. 익명성, 권력과 권위, 돈과 표 같은 열두 가지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와 건물이 저마다 사연을 품고 말을 걸어옵니다. 지은이는 도시를 읽어내는 데서 나아가, 좋은 도시란 어떤 곳인지를 묻습니다. 독자는 그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읽는 일이 곧 우리가 사는 방식을 살피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내 삶과 내가 사는 곳의 관계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싶은 학생에게 이 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_ 자문 교사단

한걸음 더

- ☑ 내가 사는 도시의 공공공간을 조사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기
- ☑ 재개발·도시재생 지역을 조사한 뒤, 개발의 혜택과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평가하기
- ☑ 신도시와 구도심의 교통·주거·생활 환경을 비교하고, 기후위기와 인구 변화에 대응할 미래 도시를 구상하기

지리 교과 자문 교사단

서태동 교사(광주제일고등학교)
배동하 교사(충북 흥덕고등학교)
이건 교사(경기 성사고등학교)

ONE PICK!
함께 읽기

도시를 읽는 열두 개의 눈

우리는 매일 도시를 걷지만, 정작 그곳에 어떤 이야기와 질서가 숨어 있는지 생각할 일은 많지 않다. 너무 크고 복잡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쩐지 내 삶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거대한 공간. 이 책은 바로 그 익숙한 일상에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다.

그 출발점은 '익명성'이다. 우리가 도시에 느끼는 은근한 불안은 모르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데서 온다. 한데 책은 이 익명성을 오히려 도시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 말한다. 출신도 신분도 묻지 않기에, 도시에서는 누구나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 사실은 자유를 넓혀준다니!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야기지만, 읽을수록 어느새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권력을 건물로 읽어내는 대목도 흥미롭다. 권력기관의 건축에 깔린 가장 깊은 감정이 실은 '두려움'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시민을 복종시키려면 스스로 두려운 존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집무실과 참모진이 멀찍이 흩어져 소통이 막힌 청와대, 권위를 과시하려다 몸집만 커진 국회의사당,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 검찰청 건물까지. 책을 읽다 보면 평범해 보이던 거리의 건물들이 저마다 속내를 품은 텍스트로 바뀐다.

시선은 우리의 일상으로도 향한다. 책은 배타적인 성채처럼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가 동네를 실핏줄처럼 잇던 골목길을 지워버린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자체를 탓하지는 않는다. 담을 쌓는 단지형 대신, 길에서 바로 드나드는 '가로형 아파트'를 대안으로 내놓는다. 예찬도 비난도 아닌, 좋아하면서도 문제를 피하지 않는 이 균형 잡힌 시선이 책 전체를 받치고 있다.

열두 가지 키워드를 따라 책장을 넘기다 보면, 날마다 무심히 지나치던 길과 광장, 건물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씩 드러난다. 이 책은 도시를 통해 우리가 사는 방식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길잡이다.

자문 교사단의 '+' 추천 도서

제목/난도	지은이/출판사	추천평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	김세훈 한숲	이 책은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아홉 개의 렌즈로 풀어낸다. 규모와 경계, 걸을 권리, 다양성과 회복력 등 여러 각도에서 도시를 비추며, 그 혜택이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돌아가는 도시를 묻는다. 도시 설계를 연구해온 지은이는 그 답을 일상의 관찰에서 찾기에, 전문 지식 없이도 차분하게 읽을 수 있다. 날마다 지나는 길과 광장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좋은 안내서다.
〈도시의 미래탐구〉 ★★★★	한국도시지리학회 법문사	예비·현직 교사와 도시 전공자를 위해 도시의 미래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탐구한 책이다. 도시화와 공간 구조, 주거와 부동산, 이주와 다양성 등을 총 열세 장에 걸쳐 다룬다.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과 연계해 이론과 실제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연계 전공

도시공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지리학과 인류학과 등

도시공학과

“폭넓은 독서, 대입 면접에도 도움 됐죠”



하유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3학년

Q. 전공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학생 때부터 건축이나 실내 인테리어처럼 우리 주변의 공간을 구성하는 일에 흥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점차 다양한 공간이 모여서 이루는 도시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건축이나 실내 인테리어 산업의 고객은 개인인 경우가 많지만, 도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제가 선택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는 도시 계획과 설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과예요. 실제 수업에서는 공간을 구성하는 법,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모여드는 이유 등을 이론으로 배우고, 교수님께 직접 설계한 내용을 피드백 받기도 해요. 수업에서 ‘이 공간을 정말 사람들이 쓸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긴장된답니다. (웃음)

대학 입학 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교 시절에 수학·과학 과목을 주로 이수하면서 사회 수업을 많이 듣지 못한 것이에요. 신도시나 이촌향도 같은 도시 관련 개념들을 고교에서 배우고 대학에 진학했다면, 전공 수업을 훨씬 수월하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Q. 고교에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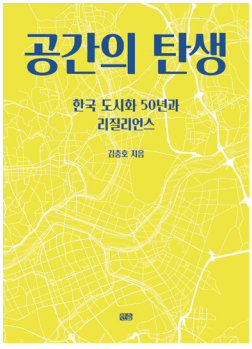
흥미가 있는 건축 관련 도서를 주로 읽었어요. 특히 희망 대학·학과의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읽으며 제 관심사를 발전시켰죠. 지식이 한 분야에 치중되지 않도록, 환경처럼 건축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의 책도 고루 읽었어요. 이런 경험은 대입 면접에서 ‘건축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왜 도시공학과를 지원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됐습니다. 환경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일반 건축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 고민의 결과가 도시 설계였다고 설명했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지은이 유현준
펴낸곳 을유문화사

여러 방송으로 유명해진 유현준 건축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도시를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르고, 일상을 보내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줘요. '왜 사람들은 골목길과 광장에서 다르게 행동할까?' '왜 성수동에는 사람이 많을까?' 등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도시가 사회의 권력과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을 설명하죠. 도시와 공간에 관심이 있거나 평소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호기심을 느낀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배경지식이 없어도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공간의 탄생〉

지은이 김충호
펴낸곳 한숲

도시는 치밀한 계획과 설계의 결과물이지만, 이 과정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데요. 〈공간의 탄생〉은 도시 설계 전문가인 김충호 교수님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가 형성되고 변화한 역사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도시가 지속 가능한지 질문을 던지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보다 난도가 높기에, 도시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해요. 책의 목차를 보면 '농촌의 도시화' '자연의 도시화' 등 연대별 도시 공간의 특징이 키워드로 요약돼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책을 읽으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좋아요. 도시에서 살아온 경험을 활용하면 내용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